

JW중외제약 자회사 C&C신약연구소

싱가포르와 손잡고 혁신신약 개발

과학기술청과 공동연구 계약 체결
피부질환·면역 치료제, 항암제 등
“新 글로벌 협력모델 제시 의미있어”

한-일 합작 바이오벤처 C&C신약연구소가 혁신신약 개발을 위해 싱가포르 핵심 연구기관과 손을 잡는다.

JW중외제약과 일본 주가이제약의 자회사인 C&C신약연구소는 싱가포르 과학기술청(A*STAR)과 글로벌 신약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싱가포르 A*STAR와 양해각서(MOU) 수준의 업무제휴를 한 적은 있었지만 기초 연구 분야에서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 공동연구 프로젝트는 2020년까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혁신신약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C&C신약연구소와 A*STAR 산하 싱가포르 피부연구소(SRIS), 계놈연구소(GIS), 면역 네트워크(SIGn), 메디컬 바이오로지 연구소(IMB) 등 4개 연구기관과 국립피부센터(NSC)가 협력해 진행한다.

연구 분야는 다양한 피부질환 신약을 포함하는 면역질환치료제와 암 줄기세포 타겟 치료제를 포함하는 항암제로, C&C신약연구소가 탐색연구 중인 신규 작용기전을 갖는 혁신신약 후보물질을 이용한다.

C&C신약연구소는 A*STAR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최첨단 연구시설과 동물 모델, 중개임상연구 분야의 다양한



JW중외제약과 일본 주가이제약의 자회사인 C&C신약연구소가 지난 3일 싱가포르 바이오폴리스에 위치한 계놈연구소에서 싱가포르 국책 연구기관인 과학기술청 A*STAR와 글로벌 신약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했다. 벤자민 시트 A*STAR 상임이사, 탄 수왓 훈 국립피부센터장, 안영집 주싱가포르 한국대사, 아마자키 타츠미 C&C신약연구소 공동대표, 전재광 C&C신약연구소 공동대표(왼쪽부터)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반 기술을 통해 바이오마커, 약물작용 메커니즘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는 등 상업화를 위한 임상물질을 공동 연구기간 내에 도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STAR 상임이사인 벤자민 시트 박사는 “사회적으로 면역질환과 항암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높다”며 “C&C신약연구소와 같은 아시아 최고 연구센터 간의 협력이 인류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C&C신약연구소는 앞으로 A*STAR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를 다각화하는 등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통해 면역질환과 항암제 분야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바이오벤처로 도약한다는 전략이다.

C&C신약연구소 아마자키 타츠미·전재광 공동대표는 “글로벌 혁신신약 연구

분야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핵심 기술을 사들이거나 경쟁사와 합병하는 일이 흔히 발생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기초 과학 분야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계약은 한국 바이오벤처 기업이 해외 정부의 핵심 연구 기관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새로운 글로벌 협력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C&C신약연구소는 지난 1992년 JW중외제약과 로슈그룹 산하 주가이제약이 50대 50 비율로 출자해 설립한 국내 최초 합작 바이오벤처 법인이다. 지난 2010년부터 자체 신약 탐색연구를 추진한 이후 총 8종의 혁신신약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화학생물정보 유전체 DB를 중심으로 하는 테크놀로지 플랫폼(CLOVER)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환자 맞춤형 정밀 의학연구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현대렌탈케어, 대형가전 렌탈 진출

삼성전자·캐리어 손잡고
‘의류 건조기’ 2종 출시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토탈홈케어 기업 현대렌탈케어가 의류건조기를 출시하며 본격적으로 대형 생활가전 렌탈시장에 뛰어들었다.

현대렌탈케어는 ‘삼성 의류 건조기(모델명: DS-30SW·사진)’와 ‘캐리어 의류 건조기(모델명: DC-30S)’를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대형 생활가전 렌탈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렌탈케어는 이제까지 정수기·공기청정기·비데 등 소형 생활가전 제품 20여종을 판매해 왔다.

의류건조기는 국내에서 공기청정기와 더불어 미세먼지 여파로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제품군 중 하나다. 가전업계에 따르면 국내 의류건조기 시장은 2014년 5만대 수준에서 지난해 60만대로 늘어났고 올해는 100만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대렌탈케어는 국내 최고 수준의 제품 성능과 브랜드 인지도를 자랑하는 삼성전자와 캐리어의 최신 제품 판매를 통해 국내 의류 건조기 렌탈 시장에 빠르게 정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판매에 들어 가는 의류건조기 2종은 히트펌프 방식을 채택했다. 히트

펌프 방식이란 세탁물에 직접 고열을 불어넣지 않고 저온의 열로 습기를 제거해 옷을 말리는 방식을 말하는데, 고온의 열풍을 사용하지 않아 옷감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다.

제품별 렌탈료는 삼성 의류건조기가 2만 7900원(화이트 색상), 캐리어 의류건조기가 2만 4900원(실버 색상)이다.

현대렌탈케어는 이번 의류건조기 출시를 시작으로 오는 8월까지 대형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 다양한 생활가전 제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박성수 현대렌탈케어 영업전략실장은 “의류건조기 판매를 시작으로 다양한 생활가전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하반기 주방가전과 가구 렌탈사업 전개를 통해 사업 다각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피자알블로_중국 상해 2호점 오픈.

/피자알블로

피자알블로 中 상해 2호점 오픈... 방문객 폭적

수제피자 전문 브랜드 피자알블로가 중국 상해에 2호 매장인 ‘피자알블로 진사장루점’을 오픈했다고 5일 밝혔다.

피자알블로 상해 2호점 진사장루점은 약 36평 규모로 상해 내 체인 쇼핑몰인 화연상가 1층에 위치해 있다. 화연 상가는 상해 내 5개 점포를 가지고 있는 체인 쇼핑몰로 피자알블로는 상해 내 피자 브랜드로는 유일하게 입점하게 됐다.

화연상가 쇼핑몰 인근에는 화동사범대학교가 위치해 있어 쇼핑몰 방문 고객 및 인근 학생들까지 유입이 가능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피자알블로는 이번 상해 2호점 오픈을 맞아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식 행사,

회원 카드 할인 등의 행사를 진행해 고객 방문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오픈한 1호점의 꾸준한 매출과 현지인들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2호점도 성공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피자알블로 관계자는 “국내가 배달 위주의 영업이 많은 것과 달리 중국은 매장 방문 고객이 많은 편이다. 상해 2호점의 경우 쇼핑몰 고객, 인근 학생들의 유입으로 실제 방문 고객이 50%에 육박하는 등 점심, 저녁 시간대 만석을 기록 중”이라며 “성공적인 매장 운영을 바탕으로 피자알블로만의 맛과 가치를 중국에서도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반려동물 피부진균증 치료제 출시... ‘펫팜족 주목’

대한뉴팜 DH폴비신 과립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변화, 저변화대로 백신·의약품 등 펫 케어 제품이 관심을 얻고 있다. 5일 코스닥 상장사 대한뉴팜은 반려동물(개, 고양이)의 주요 피부병 중 하나인 Tinea, Trichophyto 및 Microsporum 등 진균에 의한 피부진균증 예방 및 치료제인 ‘DH폴비신 과립’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반려동물에게 흔히 나타나는 피부진균증은 ‘버짐’ 또는 ‘뿔핍’으로 알려져 있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보호자 및 동거 동물에게도 쉽게 전

염되는 인수공통질환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다. 하지만 반려동물의 경우 효과, 부작용,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은 인체용의약품을 혼용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돼 왔다.

‘DH폴비신 과립’의 주요 성분은 반려동물에 최적화된 그리세오폴빈(항균제)으로 피부진균증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게 업체의 설명이다. 안전성 또한 검증 받았다. 서울대학교 수의대학에서 진행한 ‘DH폴비신 임상시험·독성시험’ 결과 발표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피부진균증에 효과적이고 안전한 제품임이 확인된다. 또한 지난 2월 동

물용의약품으로는 유일하게 그리세오폴빈제로 허가를 취득해 펫팜족의 니즈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라는 사회적 트렌드 속에 반려동물을 가족 삼아 키우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을 겨냥한 ‘펫코노미’(펫과 이코노미의 합성어) 시장도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 농림식품축산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는 천만을 넘어섰으며 시장 규모는 2015년 1조8000억원, 2018년 3조원, 2020년 약 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네네치킨 깨끗한 가맹점 위해 정비 실시

대대적인 청소·위생점검 완료

네네치킨이 깨끗한 가맹점 만들기에는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6월 12일부터 26일까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15곳, 해당 가맹점 45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네네치킨은 구암·봉명점 1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에 네네치킨은 발 빠르게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시정 권고를 받은 해당 가맹점에 지난 4일 오전 클린바이저를 급파해

전체적인 청소 및 위생점검을 완료했다.

네네치킨은 해인식품 음성공장 물류센터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여름철이 다가오기 전, 전체적인 식자재 안전점검 실시 단계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해 안타까움이 크다는 입장이다.

다만, 세부적인 관리 단계에서 일선 실무자가 실수를 범한 것은 본사의 실수로 인정하고, 위생관리 매뉴얼 재정립, 대대적 정비와 재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네네치킨은 지난 2012년부터 소규모 매장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위생 상태 점



네네치킨이 식약처의 특별 점검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구암·봉명점에 클린바이저를 급파했다. /네네치킨

검 및 작업을 실행하는 서비스팀 ‘클린바이저’를 운영, 매주 3회씩 전국 매장을 대상으로 정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네네치킨은 깨끗한 가맹점을 만들기 위해 클린바이저, 사내 소식지 등을 꾸준히 운영할 계획이다. /김민서 기자

청호나이스 “에어커튼, 전자랜드서 만나세요”

청호나이스는 자사가 최근 선보인 에어커튼이 전자랜드에 입점했다고 5일 밝혔다.

‘에어커튼’(사진)은 직선토출 기류의 바람을 이용해 외부 공기 유입은 막고 실내 공기가 밖으로 빠져 나가는 것은 차단해 열 손실을 최소화함으로써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제품이다. 이 때문에 최근엔 쇼핑센터, 음식점, 카페, 편의점, 은행 등 고객 출입이 빈번한 업소나 학교 조리실,



음식 냄새에 민감한 가정 등에서 설치가 늘고 있다.

청호나이스는 지난 4월 에어커튼을 설치한 이후 현재까지 누적으로 500대 이상 판매를 기록하고 있다. 에어커튼 제품 가격은 29만7000원이다. /김승호 기자 bada@